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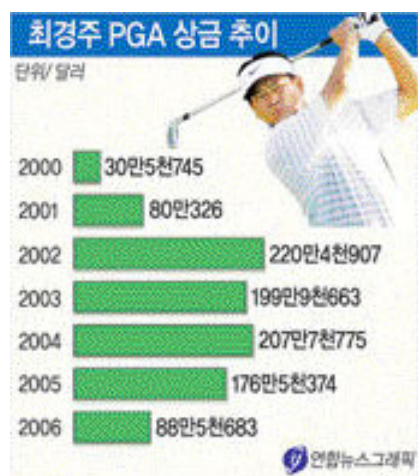


'탱크' 최·경·주 13언더파...9위 올 두번째 톱10

통산 상금 1천만 달러 넘었다

47세 페이빈 18언더 우승 PGA US뱅크챔피언십 최종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시즌 두 번째 '톱 10'과 함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상금 1천만 달러를 돌파했다. 최경주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브라운디어파크골프장(파 70·6천739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US뱅크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4타의 불꽃타를 뽐냈다. 전날 3라운드에서 공동 22위로 밀려나 '톱 10' 진입이 어려웠던 최경주는 이날 팽타에 힘입어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67타로 공동 9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3라운드까지 샷과 퍼팅이 엇박자를 내는 통에 좁게 상위권으로 치고 나오지 못했던 최경주는 이날 최고의 플레이를 펼쳤다. 공격적인 드라이브샷은 페어웨이 적중률이 69%로 썩 좋지는 않았지만 아이언샷 그린 적중률은 무려 78%에 이르렀다. 더구나 최근 속을 썩이던 퍼팅 감각이 돌아와 홀당 1.5개골인 25개의 퍼트로 18홀을 마무리했다. 이런 절정의 샷 감각과 퍼팅을 앞세운 최



경주는 2번홀(파4) 보기 이후 7개의 버디를 잡아 상위권으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 4월 셀류스틴오픈 공동 6위 이후 3개월만에 시즌 두 번째 '톱 10'에 오른 최경주는 10만4천달러의 상금을 보태 통산 상금이 1천3만9천474달러로 불어났다. 2000년 PGA 투어 멤버가 된 지 7년만에 상금 1천만 달러 고지를 밟은 최경주는 이로써 한국골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PGA 투어에서 지금까지 통산 상금 1천만 달러를 돌파한 선수는 최경주를 포함해 고작 65명 뿐이다. 최경주보다 앞서 PGA 투어에 데뷔해

이저대회를 2차례나 제패하고 통산 5승을 올린 존 벨리(미국)도 아직 1천만 달러는 채우지 못했다. 1997년 PGA 투어 켈리파이닝스쿨을 통해 2000년 PGA 투어에 합류한 최경주는 첫 해에는 30만 달러를 벌어들인데 그쳐 투어카드를 잃었지만 재수 끝에 다시 PGA 투어에 뛰어들어 이듬해 80만 달러를 획득, 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다. 2002년 2차례 우승과 함께 220만 달러를 벌여 정상급 스타로 우뚝 선 최경주는 2003년에도 우승은 없었지만 200만 달러에 337달러 모자란 거금을 챙겼다. 2004년에도 우승없이도 200만 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1승을 보낸 최경주는 올해 들어 성적이 다소 처지면서 상금랭킹이 60위권으로 밀렸지만 또 하나의 신기원을 이뤄내며 한국골프의 간판 선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아시아 선수가 통산 상금 1천만 달러를 넘은 것은 마루야마 시게키(일본)에 이어 최경주가 두 번째다. 우승컵은 올해 47세의 노장 코리 페이빈(미국)에게 돌아갔다. 페이빈은 3언더파 67타를 쳐 합계 18언더파 260타로 제리 켈리(미국·262타)를 2타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수중 발레 환상의 듀엣 러시아의 싱크로나이즈 대표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 아쿠아틱 챔피언십 대회에서 아름다운 듀엣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찬호, 부상자 명단에

빈혈 증세...이달 중순 복귀 예정

'코리아특급'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사진)가 빈혈 증세로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샌디에이고는 지난달 31일(이하 한국시간) 박찬호가 빈혈 증세 때문에 27일부터 소급되는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예전에도 빈혈 증세를 보인 적이 있는 박찬호는 지난달 30일 검사 결과 빈혈 진단을 받았다. 콜로라도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하기 위해 텐베에 있던 박찬호는 지난달 29일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했고 구단은 이날 박찬호의 선발 등판 계획을 취소하고 샌디에이고 집으로 돌려 보냈다. 샌디에이고는 박찬호 대신 오른손 투수 마이클 톱슨을 트리플A 포틀랜드로부터 불러들였다. 톱슨은 올 시즌 포틀랜드에서 11번 선발출장해 5승1패, 평균자책점 4.14를 올리고 있다. 박찬호는 8월 중순에 복귀할 예정이다. 올해 21경기에 출장해 팀에서 가장 많은 126.1이닝을 던진 박찬호는 7승6패, 평균자책점 4.63을 기록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마이내리그 백차승 10승, 이승학 7승 쾌투

백차승이 두자리수 승리투수가 됐고 이승학도 7승째를 거뒀지만 김성우는 난타당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시애틀 산하 트리플A팀 타코마 레이니어스의 백차승(26)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워싱턴주 타코마 체니스타디움에서 열린 오클라호마 레드호크스(텍사스 산하)와 홈경기에서 선발등판해 시즌 10승째(4패)를 거뒀다. 백차승은 6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7안타를 맞으며 4실점(3자책점)했지만 삼진 8개를 슈아내며 잘 던졌다. 타코마 타선은 2회까지 일찌감치 8득점해 8-7로 승리했다. 필라델피아 산하 스킨스 레드바론스의 투수 이승학(27)은 오타와 린크스(볼티모어 산하)전에서 0-0인 5회초 마운드에 올라 2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았다. 이승학은 6회말 스킨스 2점을 뺏으며 2-0으로 이겨 승리투수가 돼 시즌 7승7패를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형택 올 세번째 정상 등극

ATP 피프스서드뱅크 클래식-델리에 2-1 역전승

한국 남자테니스의 희망 이형택(세계랭킹 98위·삼성증권)이 남자프로테니스(ATP) 켈린저급 대회에서 시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형택은 지난달 31일 미국 캔터키주 렉싱턴에서 벌어진 총상금 5만달러가 걸린 켈린저대회 피프스서드뱅크 클래식 단식 결승에서 미국의 아머 델리(200위)에게 2-1(5-7 6-2 6-3)로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올해 부산오픈 단식과 하노이오픈 복식에서 각각 우승했던 이형택은 자신감을 얻기 위해 출전한 켈린저 대회에서 세 번째로 정상에 오르며 올 9월 22일 루마니아에서 있을 데이비스컵 월드그룹 플레이오프에서의

선전을 예고했다. 이형택은 우승 상금으로 7천200달러를 받았고 ATP 랭킹 포인트 60점을 얻어 1일 발표되는 세계랭킹에서 순위가 80위권대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형택은 2003년 3월 ATP랭킹 52위까지 오르며 총상금 34만9천50달러를 벌어들여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올해 상금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1만 500달러. 1995년 프로에 뛰어들 뒤 따낸 역대 총상금은 150만9천600달러다.

한국 2연승 '스파이크'

월드리그 국제배구 예선리그

한국 남자배구가 2006 월드리그 국제대회에서 이집트를 상대로 2연승을 올렸다. 김호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달 31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이집트 카이로 콤플렉스홀에서 열린 예선리그 D조 이집트와 2차전에서 3-0(25-23 25-22 25-18) 완승을 거뒀다. 이틀전 이집트를 3-1로 제압한 한국은 원정 첫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이집트와 역대 상대전적에서 5승1패로 크게 앞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울산 현대, A3챔피언스 참가

지난해 한국 K-리그 챔피언 울산 현대가 한·중·일 프로축구 정상 등극에 도전한다. 울산은 한·중·일 프로축구 정상팀들이 나서서 A3챔피언스컵 2006에 출전하기 위해 대회가 열릴 일본으로 지난달 31일 출국했다. A3챔피언스컵은 한·중·일 리그 우승팀들이 모여 3개국 최강 프로팀을 가리는 대회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지난 2003년 일본에서 시작해 2004년 중국, 2005년 한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했고 올해는 다시 8월2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른다. 우승상금은 40만 달러이며 준우승 20만 달러, 3위 15만 달러, 4위 10만 달러를 받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